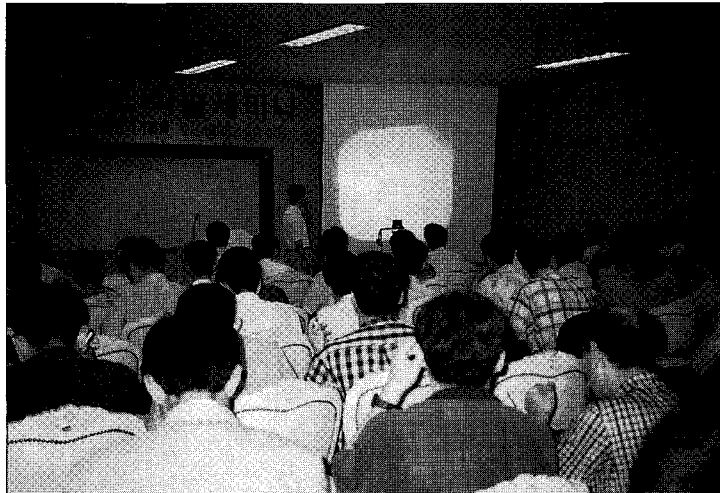


광응용기술세미나 참석자 설문조사

-내용은 다소 어려웠지만 기술활용성이 높은 강의였다고 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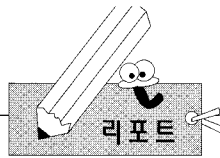
▲ 광응용 기술세미나 참석자는 강의내용은 다소 어려웠지만 기술활용성이 높은 강의였다고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주최로 광응용기술세미나가 지난 8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한 100여명의 관련업계, 연구계, 학계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내용에 대한 의견 및 향후 세미나 개최에 대한 희망분야 등의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60명이 작성한 응답을 기준으로 설문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참석인원은 연구계의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강의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꼈고, 향후 광학기술세미나의 개최를 희망하는 분야는 렌즈 등 소재부품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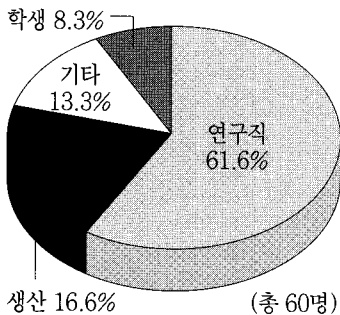


광응용기술세미나에 참석한 100여명 중 설문응답자 60명의 답변을 중심으로 이번 세미나의 결과 및 의견을 분석하였다.

1. 참여분야 및 경력

이번 광응용 기술 세미나에 참석자 중 설문응답자 가운데 연구직이 37명으로 가장 많아 61.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생산이 10명으로 16.6%, 학생이 5명으로 8.3%, 기타(서비스, 무역, 관리분야 등)가 8명으로 13.3%를 차지했다.

대부분 연구분야의 종사자들이 많은 관심도와 호응도를 나타내었다.



(총 60명)

2. 세미나내용에 대한 만족도

가. 내용대비 시간

청주대학교 광학공학과 이종웅 교수의 “광학설계에서의 비구면응용”에 대한 강의

에 대해서 내용대비 발표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7.3%이며, 30.9%는 내용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전광(주) 채진석 대표이사의 “정밀렌즈가공”에 대한 강의에서는 61.5%가 발표시간이 적절했다고 답했으며, 32.7%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물리학과 박성찬 교수의 “렌즈모듈을 이용한 증광학계 설계”는 71.1%가 시간배정이 적절했으며 22.2%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내용에 비해 배정된 발표시간이 부족했다고 응답해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강의일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발표내용에 대한 넉넉한 시간할애가 아쉬웠던

세미나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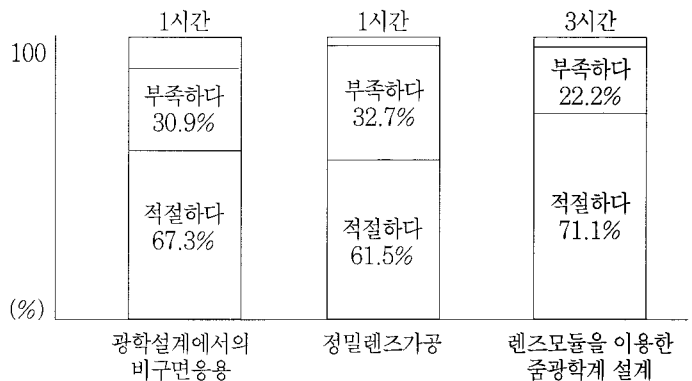
나. 내용의 난이도

“광학설계에서의 비구면응용”에 대한 내용의 난이도는 60.7%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39.3%는 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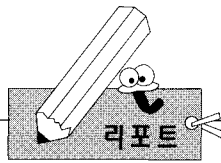
또한, “정밀렌즈 가공”에 대한 강의에서는 응답자의 73.6%가 난이도면에서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15.1%는 쉽다고 응답한 반면 11.3%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리고 “렌즈모듈을 이용한 증광학계 설계”는 71.7%가 난이도면에서 적절했다고 응답했고, 4.3%는 쉽다고 한 반면 23.9%가 어렵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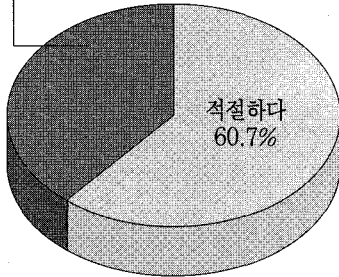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실제응용분야인 정밀렌즈가공에 대해서는 88.7%의 참석자가 적절하거나 쉽다고 했으며, “광학설계



(그림 2) 세미나 내용 대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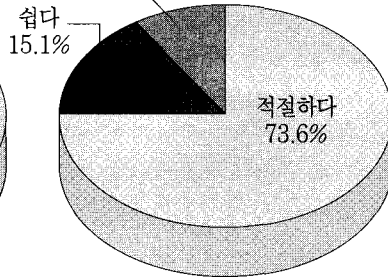


어렵다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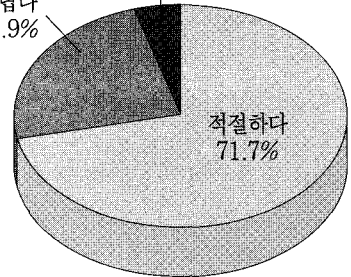
“광학설계에서의 비구면응용” 난이도

어렵다 11.3%



“정밀렌즈 가공” 난이도

어렵다 23.9%



“렌즈모듈을 이용한 증광학설계” 난이도

〈그림 3〉 세미나 참석자의 참여분야

에서의 비구면응용”과 “렌즈 모듈을 이용한 증광학계 설계”는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술의 활용성

광응용기술세미나에 발표된 “광학설계에서의 비구면응용”에 대해서는 참석자의 27.5%가 기술활용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66.7%는 기술의 활용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해 전체의 94.2%가 이 강의의 기술활용성에 대해 많은 호응을 갖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밀렌즈 가공”에 대한 강의에서는 28.0%는 활용성이 높다고 했으며, 70.0%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렌즈 모듈을 이용한 증광학 설계”의 기술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38.1%가 활용성이 높다고 하였고 54.8%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라. 종합

강의내용별로 종합해 보면 내용대비 시간이 가장 부족했던 강의는 “정밀렌즈 가공”이었으며 내용의 난이도에서는 “광학설계에서의 비구면응용”이 가장 어려웠고 기술의 활용성은 세 강좌 모두 90%가 넘는 응답자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해 만족스럽다고 했으며 그 중 “렌즈모듈을 이용한 증광학 설계”는 기술활용성면에서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3. 광학기술세미나 개최 희망 분야

앞으로 광학기술세미나를 개최하기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1순위로 꼽은 분야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렌즈 등 소재, 부품이 전체의 36.8%를 차지해 역시 참가자들의 관심분야는 렌즈 분야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었다.

그 다음은 광영상디지털 분야는 28.1%, 광학기기는 19.3%로 광의료계측이 7.0%, 광정보통신기기 5.3%, 레이저기기 3.5%를 차지했다.

4. 결론

이번 광응용기술세미나를 설문분석결과에 의해 평가하면 연구직에 종사하는 참가자들이 대부분이고 세미나내용에 대한 의견에서는 다소 어렵지만 기술의 활용성이 높은 강의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광분야의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렌즈 분야 뿐만 아니라 광영상 디지털, 광학기기, 광의료계측기기, 레이저기기 등에 대한 세미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